

출판 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의 번역을 중심으로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최근 출판 번역서에 대한 비평, 점검 및 분석이 여러 주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이러한 비평 작업은, 주로 번역 오류 분석, 원서의 의미 또는 문체에 대한 충실성, 또는 번역어 문화권의 독자 관점에서의 가독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서와 ‘출판된’ 번역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당연시되었던 ‘출판된’ 번역이라는 측면은,

1) 번역에 대한 비평 및 점검 작업은 『교수신문』, 각종 학회 및 단체(예, 한국문학번역원, 영미문학연구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출판학계에서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도서 중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24%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서 출판 번역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김선남 101). 한편 출판 번역서에 대한 분석 및 비평을 꾸준히 해왔던 번역학계에서는 최근 ‘번역 비평에 대한 비평 및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상원 46-48; 전현주 169).

사실 번역에 대한 고찰에서 점검 및 규명이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출판번역이 원어를 읽지 못하는 번역어 문화권의 독자들을 위해 원어 작품을 번역어로 옮겨 도서 형태로 출판한 번역이라고 본다면, 이는 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번역자 자신을 위한 개인적 번역, 정부 기관 등의 제도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문서 번역, 일반적인 출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번역 등의 번역 유형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출판 고유의 맥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출판번역은 원서 저자가 독자를 대상으로 쓴 텍스트가 번역주체에 의해 특정한 상황에서 번역되어, 새로운 독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출판된 것이다. 출판번역을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러한 관점에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함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번역은 텍스트만의 문제가 아닌 ‘주체’와 ‘상황’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떤’ 주체가 ‘어떤’ 맥락에서 번역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번역을 텍스트 중심적인 문제가 아닌, 역사적·문화적·사회적·제도적 문제로 만든다. 특정한 맥락과 결합된 텍스트를 출판번역 관련 주체가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새로운 맥락과 결합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단절’과 ‘연결’의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출판번역은, 이렇게 단절되고 탈중심화된 텍스트를 출판번역 주체가 다른 독자와 상황에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번역학계에서 출판번역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번역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로 개념화되던 차원을 넘어 권력의 문제, 제도적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앙드레 르페베르는 번역서의 생성 및 수용에 있어 출판사를 “후원자(patron)”로 간주하고, 후원자 집단을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 즉 언론기관, 교육기관, 권력을 가진 개인 등과 함께 문학번역 시스템을 통제하는 주된 세력으로 지목한다(Lefevre 15-16).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는 번역자의 언어적 고려사항과 출판인의 이데올로기적 고려사항이 충돌할 경우, 출판인의 이데올로기가 최종적인 판단의 잣대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Lefevre 39). 한편 베누티는 출판을 위한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과 번역서의 수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질적인 텍스트의 번역 여부는 자국어 문화권의 가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Venuti 18). 즉 이질적인 텍스트는 번역어 문화권에 존재해왔던 가치, 믿음, 표상 등에 의해 재구성되며, 번

역서의 성패도 원서의 내용이 아닌, 번역서의 생성 및 수용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셀프헬프』(Self-Help)의 출판번역을 텍스트의 ‘재(再)맥락화(recontextualization)’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²⁾ 여기서 ‘재맥락화’란, 원서 저자의 ‘맥락’ 속에서 탄생되고 유통된 텍스트가 출판번역의 주체들에 의해 ‘다시’ 맥락화됨을 의미한다. 『셀프헬프』는 1859년 새뮤얼 스마일즈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쓴 저서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18년 한국어 단행본으로 처음 소개된 이래 2006년까지 11명의 역자에 의해 각기 다른 시기에 번역되어 총 17종의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찰하고, 이러한 맥락이 실제 번역텍스트 구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서의 단어, 구문 등 미시적인 텍스트 구성 요소들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번역서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셀프헬프』 한국어 출판번역의 맥락적 요소들, 즉 출판번역 관련 주체들, 번역의 목적, 대상 독자 등을 조명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번역, 맥락 그리고 텍스트의 ‘재맥락화’

‘맥락’은 철학,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면서도 학문 분야별, 학자별로 매우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이다.³⁾ 이처럼 맥락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립되는 가운데서도, 맥락은 흔히 ‘초점(focal point/figure)’과 ‘배경(background)’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었다(Duranti and Goodwin 9). ‘초점’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건 또는 현상을 뜻하는 반면, ‘배경’은 이러한

2)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인 『셀프헬프』를 언급할 때, 한글전용 원칙에 따라 원서는 『셀프헬프』로, 번역서는 『자조론』으로 지칭한다.

3) ‘맥락’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Wittgenstein을,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Van Dijk, Sperber and Wilson을,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Levinson, Ochs를 참조하길 바란다.

초점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소들을 지칭한다. 번역과 관련해서는, ‘초점’이 텍스트, ‘배경’은 텍스트 생성 주체들, 텍스트 관련 제도적·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역사적 요소들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을 이리한 ‘배경’으로 간주한다.

번역학에서 ‘맥락’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맥락’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번역을 논한 유진 나이다(Eugene Nida)와 같은 번역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나이다는 ‘번역어 문화권의 맥락’ 중심적인 논의를 통해 원천텍스트 의미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던 기존의 ‘등가관(觀)’을 거부하였다. 그는 번역에서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달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는데, 그에게 있어 역동적 등가는 어떤 표현이 갖는 효과를 ‘번역어 문화권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번역을 통해 달성하는 등가이다. 그는 역동적 등가를 토대로 ‘등가’란 상대화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맥락이 번역학에서 특정 언어표현 선택의 문제를 넘어 번역행위 수행을 기술·설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기능주의 이론의 두 축인 ‘번역행위이론(Theory of Translational Action)’과 ‘스코포스이론(Skopos Theory)’에서는 번역이 목적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라는 관점에서 ‘맥락적 요소들’을 번역 수행의 핵심적 요소들로 간주한다. 번역행위이론에 의하면, 번역은 ‘목적’과 ‘의도하는 결과’, 그리

4) 맥락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다의 ‘맥락’에 대한 기술은 너무 평이하다. 그러나 1960년대 ‘역동적 등가’ 개념이 번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까지 ‘맥락’이 나이다의 번역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이다는 번역과 맥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하나의 구(phrase)를 이루는 각 요소들의 기능과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알려면 맥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특정 요소의 직접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 전체의 광범위한 맥락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Nida and Taber 46)

여기서 맥락이란 특정 언어표현이 선행 또는 후행 담화에 사용된 다른 언어표현들과 갖는 관계, 의사소통 상황 및 배경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고 번역행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번역텍스트의 구체적인 표현 선택은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Holz-Mänttari 7-8).⁵⁾ 스크포스이론에서도 번역의 '목적'이라는 맥락적 요소에 의해 번역텍스트 생성의 조건, 방법, 전략이 결정된다. 번역 행위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번역의뢰서(translation commission)에 따라 제반 측면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번역의뢰서는 번역의 목적 및 조건에 대한 번역 의뢰인과 번역자 간에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다(Vermeer 100).

번역자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번역할 때 맥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듯이, 최근 번역 연구에서도 번역 상황에 대한 "맥락화된 설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Baker 335). 이러한 논의는 원천텍스트 의미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나 번역을 텍스트 문제로만 한정하는 연구를 넘어,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생성 가능성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 어떤 목적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독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탐구의 의미를 가진다.

출판번역은 원서 저자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을 토대로 출판번역 관련 주체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다시 텍스트를 만들어 새로운 독자들에게 의해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천텍스트 생성의 맥락과 번역텍스트 생성의 맥락은 당연히 같을 수 없다. 번역텍스트 생성 맥락에는 원천텍스트와 다른 언어와 문화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의 주체들, 새로운 텍스트 생성 목적 및 과정, 새로운 독자 등이 있다. 특히 모든 것이 복잡하게 제도화되어 가는 오늘날 번역텍스트 생성은 단순히 "번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수자, 편집자 등 출판사의 관련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행위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래의 맥락에 맞게 만들어진 원서가 출판번역의 주체들에 의해 새로운 맥락에 맞는 번역서로 다시 생성되는 과정은 결국 "재맥락화"의 과정이다.

번역에서 원서의 재맥락화는, 사실 텍스트의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와 '텍스트화'(entextualizat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Bauman and Briggs 73). 즉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독자들을 위한 텍스트로 전환되기 위해 텍스트는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고립되어 우선 '탈맥락화'된다. 이렇게 탈

5) 홀츠-만타리는 '번역 행위 참여자'를 발주자(initiator), 의뢰인(commissioner), 원천텍스트 생산자(ST producer), 번역텍스트 생산자(TT producer), 번역텍스트 사용자(TT user), 번역텍스트 수신자(TT receiver) 등으로 세분화한다(Holz-Mänttari 109-111).

맥락화된 텍스트가 새로운 맥락에 적합한 텍스트로 재맥락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화(entextualization)’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기존 맥락으로부터 텍스트가 고립되어 새로운 맥락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로 다시 형성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Slembrouck 82).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재맥락화’라는 개념은 의미의 가능성을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모형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와 맥락을 정태적인 것으로 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결정론적 관계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 원서와 번역서가 각기 다른 맥락과 결합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번역서가 원서의 조건과 맥락만을 기준으로 논의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을 재맥락화의 관점에서 타당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재맥락화로서의 번역이 이론으로서 유효하려면, 이는 최소한 텍스트와 번역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는 각기 다른 맥락과 결합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재맥락화 행위로 인해 야기된 전환을 포착하여 적절한 상위언어(metalanguage)로 기술 및 설명해야 한다. (3) 원천텍스트의 특징과 번역텍스트의 특징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의 특징들과 각각의 텍스트가 속한 맥락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 및 설명해야 한다. (House 244)

하우스는 번역에서 텍스트의 재맥락화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번역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3. 『셀프헬프』의 출판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새뮤얼 스마일즈의 『셀프헬프』는 1859년에 출판된 이래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인기리에 판매된 책 중 하나다. 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스마일즈가 연설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간한 이 저서는, 본인의 노력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된 발명가, 기업인, 기술자, 문인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근면, 용기, 책임감 등 19세기 빅토리아 시대가 강조한 가치들을 일깨워준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사

회적·경제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정부도 영웅도 아닌 ‘자조정신’이라고 역설한다.

『셀프헬프』는 19세기 중반 영국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나온 저서이다.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에 의해 물질적·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고, 개인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산층의 유토피아주의”(Morris 109)를 가장 적절하게 대변했기 때문인지, 이 작품은 1859년에 존머레이(John Murray) 출판사에서 출간되자마자 1859년을 빛낸 가장 우수한 저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⁶⁾

스마일즈의 『셀프헬프』는 영국에서 출간된 지 59년이 지난 1918년에 『자조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처음 소개되고, 그 후로 2006년에 이르기까지 『셀프헬프』는 총 11명의 역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같은 역자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한 번역본과 실질적인 개정본(전면적 또는 부분적 수정 과정을 거친 번역본)을 다른 ‘판본’으로 계산할 때 총 17종의 번역본이 출간된 상태이다(표 1 참조). 이 수치는 국내 주요 서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급 도서관의 도서목록을 참조하여 추적 및 수집된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대학 도서관에 대한 조사는 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대한출판

6) 그러나 1859년을 빛낸 저술의 목록에 함께 포함되었던 존 밀의 『자유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찰즈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 등의 명성에 비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셀프헬프』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인물들의 노력과 성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체제나 두서가 없이 인물들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클로젠은 스마일즈에 대해 “진공청소기가 이 방, 저 방 휘젓고 다니면서 청소기 내의 먼지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Clausen 408). 또한 『셀프헬프』가 자본주의 찬양 일색이라는 비판도 많다. 홉스봄은 스마일즈 자신이 “자수성가한 언론인-출판인으로서 자본주의의 덕목을 찬양”(Hobsbawm 228)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특히 오늘날 출판되는 수많은 자기 계발 서적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의 『출판연감』과 김병철의 서지연구도 참조하였다.⁷⁾

본고에서는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진 지난 88년의 기간을 번역과 관련된 출판계의 전반적인 동향을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번역 및 출판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본다. 우선 ‘제1기’는 1918년부터 1950년대까지, ‘제2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제3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정하고, 각 시기별로 출판번역 관련 주제들, 번역의 목적, 예상 독자 등 맥락적 요소들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표1>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	출간 년도	출판사	번역자	쪽수	비고
자조론	2006	비즈니스북스	공병호	596	완역본, 번역서 표지에 ‘평역’임을 밝힘.
자조론/인격론	2006	동서문화사	장만기	837	완역본, 일본 고단샤 학술문고에서 출판한 나카무라 마사나오 번역의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을 참조했음을 밝힘.
자조론	2006	21세기북스	김유신	586	완역본
자조론: 인생을 가장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지혜	2006	비타민북	이화승	319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2005	비타민북		336	역자 명시되지 않음.

7) 본고의 서지목록에는 번역본이 총 17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수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체가 적지 않음을 곧 드러난다. 동일 번역자에 의한 중복 출간 등으로 전체적 수치가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간된 한국어 번역본들 중에는 본문 구성의 전환이나 본문 내용 및 의미의 재구성이 너무 두드러져 원서와의 관계성을 추적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단 본 연구에서는 ‘개작’ 또는 ‘번안’ 등으로 볼 수도 있는, 재구성이 두드러진 번역본도 서지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이는 개작과 번안의 수준에 근접한 번역서들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시켜 출판번역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찰해 보면, 광범위하게 재구성이 이루어진 배경 및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지목록에서 누락된 번역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제목	출간 년도	출판사	번역자	쪽수	비고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2003	한국산업훈련 연구소	박달규	261	번역서 표지에 '번역'임을 밝힘.
자조론	2000	민성사	문상득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 터 바뀌	1999	책이 있는 마을	이민규	263	
자조론. 자유론	1994	엘유문화사	남용우, 이상구	504	개정판, '세계의 사상' 제4권
자조론	1994	민성사	문상득	311	'세계명저 100선' 제18권
자기 앞의 삶	1993	원음사	김용정	318	
자조론	1986	성창출판사			역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세계사상전집' 제18권
자조론. 자유론	1983	엘유문화사	남용우, 이상구	464	신장판(新裝版) '세계사상전집' 제21권
자조론	1976	상서각	문상득	367	'세계교양명저전집' 제18권
자조론	1972	엘유문화사	남용우	314	'세계사상교양전집'의 제2권, 완역본, L. 버 트 회사의 『셀프헬프』를 저본으로 번역했 음. 최남선의 번역본을 참조했음을 밝힘.
자조론	1963	엘유출판사	제용우		'세계사상교양전집'의 제 18권
자조론	1918	신문관	최남선	256	원본의 6장까지만 번역, 나카무라 마사나오 번역의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 1871)의 중역본.

3.1 시기별 특징

3.1.1 제1기

제1기는 1918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이 시기에 출판된 한국 어 번역본은 육당 최남선이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하여 출간한 『자조론』뿐이다. 『자조론』이 출간된 1910년대 말은 근대 형성기인 동시에 일제에 의한 주권 침탈과 강점의 시기이다. 근대화와 식민지 현실의 극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당과 같은 근대적 지식인들은 번역을 통해 서양 문화와 사상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교육, 산업 등의 분야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김재현

316; 류시현 282-283). 특히 이 시기에 육당을 비롯한 일본 유학 출신 지식인들은 각종 서양 사상을 동시에 국내에 소개하였는데, 서양에서는 오랜 논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수용된 사상사의 조류들이 조선에서는 일본어 번역서의 중역을 통해 일시에 소개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육당의 『자조론』 출판도 “중역된 근대”(류시현 166), 식민 지배자(일본)를 통한 피식민자(조선)의 근대화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3.1.2 제2기

제2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1960-70년대는 5·16 군사 쿠데타와 제3공화국의 수립 이후 반공정책과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국내 출판계도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왕성한 의욕으로 서양 고전 번역서 전집을 출판하는 등 국내 독자들의 서구 문화와 사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 하였고,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본들도 이 시기에 전집류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번역 전집류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도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⁸⁾. 1950년대에는 25종이었던 전집류의 수가 1960년대에는 114종으로, 1970년대에는 196종으로 증가하였고, 1950년대에 17종이었던 문고류도 1960년대에는 25종으로, 1970년대에는 98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집류와 문고류의 양적 팽창과 번역의 활성화로 외국 고전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시기를 김병철은 “번역 문화의 절정”(김병철 387)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오역 있는 일역본에 대한 무분별한 한국어 중역, 한국어 번역본의 표절, 대리번역, 중복출판 등 출판사와 번역자의 부도덕성이 번역계의 심각한 문제였다(김선남 105).⁹⁾ 그러나 이러한 문

8) 김병철(192)에서는 1960년대-70년대 번역 전집류와 문고류의 출판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는 “단행본보다는 호화 양장으로 된 전집과 문고라야만 외판이 가능하여 장사가 된다”는 출판사의 입장이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9) 김병철은 1960-1980년대 번역의 양적 성장의 이면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역자측의 일역 오역을 그대로 전사하는 경우, 賣名 行爲(돈 얼마에 팔려 번역은

제들의 배경에는 번역서의 왕성한 출간에도 불구하고 1987년이 되어서야 세계 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을 수용한 한국적인 현실이 있었다.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출판번역의 기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이어졌다. 대한출판협회의 『2000년 출판연감』에 의하면 문학번역서의 발행 종수는 1986년을 정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다른 모든 분야·종류의 번역도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¹⁰⁾

3.1.3 제3기

제3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기간이다. 1990년대 전반에는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전, 첨단 뉴미디어의 전파 등으로 여가 활동과 문화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조기 퇴직, 대량 실업, 문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감소 이외에도 도서 판매의 부진과 서점들의 도산이 있었다(부길만 25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자들의 욕구도 달라지기 시작하여 독자들은 고급 전집류보다는 가볍고 얇은 페이퍼백 스타일의 단행본이나 잡지, 그

하지도 않고서 역자 명의로 빌려주는 행위), 監修 行爲(번역은 말되 제자 등에 게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맡기고는 그것을 모아서 자신의 명의로 책을 내는 행위), 轉買 行爲(번역물을 여러 출판사에 파는 행위), 賃貸 行爲(자기가 번역한 작품의 판권을 자기가 갖고 일회 출판 사용료 얼마를 받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 빌려주는 행위), 표절행위, 무국적 번역 행위(일어 하나를 무기로 하여 쓴 고료로 닥치는 대로 전세계의 작가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는 행위), 變造 行爲(장편의 몇 군데만 옮겨 놓는 행위), 譯者名 交換 行爲(똑같은 작품을 두 사람이 번역했을 경우 역자명을 합의 교환하여 再賣하는 행위) 등 역자측의 부정적인 면, 또는 정당한 번역료를 주지 않고 일어를 아는 사람에게 쓴 전사료 얼마를 주고 일역을 중역케 하여 역자 명의로만 권위자(?) 명의를 차용하는 경우, 다음은 모자이크식 번역(기왕에 나온 여러 역서 중 여기저기 얼마씩 전사하여 뜯어 맞추는 번역), 추월 경쟁에 의한 무책임한 拙速 出版, 약속 어음에 의한 원고료의 지불 지연 행위, 역자명 도용 행위, 流浪性 출판사의 난립 및 역자도 모르는 사이에 역자명을 도용하는 도용 행위, 출판사간의 역서 轉買 行爲(전집·문고 포함) 등의 출판사측의 부도덕성도 도사리고 있었음을 필자 자신도 60년대를 거처온 한 현역 역자로서 그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병철 230)

10) 문학번역서의 발행 종수는 198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1년 이후 다소 회복이 된다. 그러나 회복 후에도 1985-1986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한다.

리고 내용면에서도 쉽고 재미있는 도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이념도서는 외면당하고,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서적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특히 실용적인 경영 서적, 자기 계발 및 관리 서적, 처세에 관한 서적이 인기가 높았다¹¹⁾.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출판 서적 중 번역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5 한국출판연감』에 의하면, 2004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책은 총 3억5394종에 이르며, 이중 28.5%가 번역서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번역도서의 발행종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5,356종이었으나 2003년에는 1만88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동기간동안 출판 불황으로 인해 전체 도서 발행 종수가 약 3만5000종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교보문고가 집계한 10대 베스트셀러 작품 중 9편이 번역도서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번역서 선호도와 국내 출판계의 번역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특히 자기 계발서 시장이 번역서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검증된 저자의 작품을 찾기 위한 출판사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프헬프』는 새로운 역자들에 의해 새롭고 다양하게 포장되어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3.2 『셀프헬프』 출판번역의 매력적 요소들

3.2.1 출판번역 관련 주체들

3.2.1.1 제1기

- 11) 독자들이 읽고자 하는 책의 성격은 문화관광부가 실시하는 『2004 국민독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성인들이 책을 구입하는 목적은 ‘교양’(26.4%), ‘실생활에 도움’(20.4%), ‘재미/오락’(19.4%), ‘학습/업무’(19.1%), ‘자녀교육’(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12) 이외에도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단행본 도서가 출간되면서 책의 내용적 요소 이외의 요소들이 책의 상업적인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허연 4). 베스트셀러가 되는 요인이 작품적 요인, 출판기획 요인, 시대상황적 요인, 출판산업의 구조적 원인 등으로 지적되면서 출판사의 철저한 기획, 편집, 디자인, 광고 및 마케팅이 서적의 판매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출판계는 주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조론』의 역자인 육당은 한국 근대 초창기의 계몽적 지식인으로 계몽주의 운동의 선봉에 선 사상가인 동시에 역사학자이자 문인이다. 그는 1904년 일본 유학 중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번역하여 일본 고단샤 학술문고에서 출간된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를 1914년부터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1918년 한국어 번역서를 신문관을 통해 출간하였다(류시현 167-168).¹³⁾ 육당은 조선이 봉건적인 가치들을 극복하고 선진 자본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중에게 새 학문을 가르쳐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번역과 출판을 통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양문규 195).¹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번역 대상 텍스트로서 『셀프헬프』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¹⁵⁾

그러나 원서의 전체 13장 가운데 6장까지만 번역·출판되고 완역본 형태로 『자조론』이 출판되지 못한 것은, 이미 출간된 『자조론』이 당시 조선의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당은 3·1운동 이후 감옥에 있으면서 『자조론』의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번역했지만 이미 출간된 『자조론』이 일반인들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에 완역본이 출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류시현 70).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출판된 빅토리아 시대의 저서가 강조한 가치들은, 1910-1920년대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의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현실인식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
- 13) '신문관'은 육당이 설립한 출판사로서 『소년』 지 발간(1908) 등 출판을 통한 계몽운동을 육당이 전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정일 84). 특히 신문관을 통해 간행되는 『소년』지는 일본 출판물의 번역 및 중역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조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김윤식 30). 또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신문관에 구비된 다량의 최신 신문, 잡지, 도서 등을 토대로 국제 정세에 대한 의식을 키웠다.
- 14) 그러나 양문규(196)에서는 서구 사상 및 문명을 소개하려는 육당의 노력이 피상적인 선진문화에 대한 예찬에 머무르고 있을 뿐 침략으로 고통 받는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육당의 계몽주의는 추상성 및 관념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15) 류시현(167)에 의하면, 『자조론』이 책의 형태로 출간되기 전인 1906년 『朝陽報』에 『셀프헬프』의 서문과 주요 인물의 일화들이 일부 번역되어 실렸고, 1907년에는 『대한매일 신보』에, 1907년 『西友』에 『셀프헬프』의 1장이 소개되었다고 한다.

3.2.1.2 제2기

이 시기에는 번역자들이 일본어 번역본이 아닌, 영어 원서를 토대로 번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72년 을유문화사에서 ‘세계교양전집’ 제2권으로 출간된 『자조론』의 역자인 남용우는 ‘역자서문’에서 영어 원서를 직접 번역했음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어느 출판사의 ‘판본’을 토대로 번역했는지 밝히고 있다. 번역자들은 주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소속 교수 및 강사들이며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역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2기에 해당하는 번역본은 총 8종류이며 모두 전집류로 출판되었다.¹⁶⁾ 1963년에는 을유출판사에서 ‘세계사상교양전집’의 제2권(제용우 역)으로, 1972년에는 을유문화사에서 ‘세계교양전집’의 제2권(남용우 역)으로, 1976년에는 상서각의 ‘세계교양명저전집’의 제18권(문상득 역)으로, 1986년에는 성장출판사의 ‘세계사상전집’의 제18권(역자 명시하지 않음)으로 번역·출간되었다.¹⁷⁾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동일한 번역본이 별다른 수정 없이 한 출판사에서 여러 차례 출판되거나 동일한 역자의 번역본이 다른 출판사에서 또다시 출간되는 등 당시 출판번역 관행과 관련하여 지적되던 문제들이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에서도 관찰된다.¹⁸⁾

16)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전집류, 특히 ‘세계사상전집류’는 기획에 있어 외국의 출판 기획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편의적인 면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을 받는다(오경호 177). 특히 김병철(432)에서는 전집류가 출판사만 달리고 권 수만 다를 뿐 선정 작품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이 일본의 전집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7) 1972년 을유문화사의 ‘세계교양전집’ 제2권으로 출간된 『자조론』의 역자인 남용우는 역자 서문에서 1918년 육당 최남선이 『셀프헬프』를 6장까지만 번역한 뒤 자신의 번역서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출간되는 완역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963년에 이미 을유출판사에서 제용우 번역의 『자조론』(‘세계사상교양전집’의 제2권)이 이미 출판된 바 있으며, 이는 번역본을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대학교로 확인된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측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광대학교 도서관 측에서는 책의 파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불가하는 관계로 필자가 1963년 번역본을 직접 입수·확인하지는 못했음을 밝혀둔다.

18) 일례로 1972년 을유문화사의 ‘세계사상교양전집’ 속2권으로 출간된 나용우 번역의 『자조론』은, 1994년 동일한 출판사에서 개정판(‘세계의 사상’ 4권)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이 개정판은 1972년판과 달리 가로 조판으로 되어 있고 1994년 맞춤법에 따

3.2.1.3 제3기

제3기에는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의 주체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유형은 경영학자 및 경영 전문가 집단이며, 그들이 번역한 『자조론』은 흔히 경영·경제서적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일례로 2006년 한 해동안 새롭게 출간된 『셀프헬프』의 번역서 4종 중, 2종은 경영서적전문 출판사인 비즈니스북스와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되었고, 1종은 일반인을 위한 실용서 및 가벼운 자기계발 서적을 주로 출간하는 비타민북에서 출판되었다. 나머지 1종은 전집류를 주로 출판하는 동서문화사에서 출간되었으나 번역자가 경영학과 교수인 경우이다.

둘째 유형은 『셀프헬프』가 청소년용으로 새롭게 기획·번역·편집·출판되는 경우로서, 번역은 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번역자가 맡는다. 그 예로는 2005년 비타민북에서 발행한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1999년 책이 있는 마을에서 출판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가 있다. 특히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는 역자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

3.2.2 번역목적 및 독자

3.2.2.1 제1기

육당 최남선은 『자조론』의 번역·출판 취지를 역자서문 즉, ‘譯自助論叙言數則’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此書는實際教育의大家故스마일쓰博士의名著로世界에廣布하야幾多青年의進路를開始하고더욱東洋에來하야는新日本役軍에게偉大한感化를與한“Self Help”를譯한者니諸社會諸國民에게皆然한것처럼우리新青年의立志處身상의에寶鑑을作하러微意로써此書を譯出하얏노라 (최남선 10)

육당은 『자조론』의 독자인 “우리新青年”에게 “立志處身상의에寶鑑을作”하기 위해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빅토리아 시대 영국 중산층의 가치관을 소개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그러한 가치들로 자신을 다스리는 한편 도덕적 책임의식과 국익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 것이다.¹⁹⁾ 이는 서

라 표기되었다.

구의 근대적 가치관을 소개하여 조선의 봉건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당시 계몽주의 운동의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3.2.2.2 제2기

제2기 출판의 주된 형식이었던 전집류는, 출판사들이 저작들을 모아 특색 있는 질로 기획·정리하여 출간한 것으로, 세계의 주요 사상 또는 작품 소개와 교양 있는 문화시민 형성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다(오경호 143). 특히 『자조론』이 포함된 ‘세계사상전집’, ‘세계사상교양전집’, ‘세계사상교양명저전집’, ‘세계의 사상’ 등의 전집류는 특별히 예상 독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교양과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조론』은 이러한 전집에 포함되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서양의 고전으로 독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인 『자조론』을 세상에 내놓은 역자들이나 출판사들은 정작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해설’ 또는 ‘역자 서문’은 제공하지 않았다. 가령 1976년 상서각의 ‘세계교양명저전집’의 제18권으로 출간된 『자조론』에는 2쪽 분량의 ‘해설’과 1쪽 분량의 ‘연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작가에 대한 평가나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 해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을유문화사의 ‘세계사상교양전집’으로 출간된 『자조론』에도 2쪽 분량의 역자 서문이 있지만, 작품에 대한 번역자의 심도있는 시각이나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3.2.2.3 제3기

이 시기에는 출판계의 자기 계발 서적 붐을 타고 『자조론』도 실용적인 경영서적, 자기계발서적, 처세에 관한 서적으로 기획되어 출판되었다. 물론 기존의 전집에 포함되었던 『자조론』이 동일한 번역자의 이름으로 동일한 출판사에

19) 이와 관련하여 류시현은 육당이 『자조론』 번역을 통해 조선인들의 물질적, 정신적 계몽을 이끌어내려는 한편,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조선인의 ‘회사열’을 고취시켜 근대 일본과 경쟁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류시현 167).

서 진집의 형태로 다시 출판되거나, 동일한 번역본이 출판사만 달리하여 또다시 출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출간된 『자조론』은 주로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계발 및 관리에 관한 책으로 제시된다.

일례로 2006년에 새로 출간된 번역서의 역자인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는 ‘역자 서문’에서 번역 목적과 예상 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용기를 필요로 할 때, 무기력함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예리한 지혜를 구할 때,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여유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잠시 새뮤얼 스마일즈가 인도하는 자조정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 나서 보자. 어느새 당차게 세상살이의 거친 파고를 헤쳐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교훈을 듬뿍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병호 11)

공병호는 명백하게 『자조론』을 “자기계발서의 원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2006년에 출판된 『자조론』의 다른 역자인 김유신은 ‘옮긴이의 글’에서 번역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자수성가한 사람은 많으나 존경받는 이가 적은 것은 바로 자조 정신은 있으나 인격자로서의 덕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젊은이들이 자기 수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몸가짐을 바로 잡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물질만능주의, 속물근성, 이기심과 허황된功名심이 만연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책이 자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도야하여 한 차원 높은 고결한 국민성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유신 26)

김유신은 번역의 목적에 대해 “젊은이들이 자기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역자들은 19세기에 출간된 저서가 21세기 경쟁 사회에 사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번역서들은 모두 당당하게 『자조론』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자조론』이 한국 독자들의 자기 계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의 책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저자의

명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검증된” 책임을 부각하는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의 저서는 재미있고 유익한 21세기형 자기계발서로 포장된다.

3.3 번역본들의 결텍스트적(paratextual) 그리고 텍스트적 특징

3.3.1 제1기

육당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이 이루어진 1918년은 일제에 의한 출판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고, 당시 저자, 번역자, 출판인들은 일제의 검열을 피해가면서 출판의 계몽주의적, 문화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양문규 152).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육당이 『셀프헬프』의 총13장 중 6장까지만 번역한 것이 이러한 식민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번역이 이루어진 6장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원서와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번역본에는 누락된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외현화(explicitation)한 번역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육당의 『자조론』은 일본어 번역본을 토대로 한 중역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스마일즈의 원서를 기준으로 육당의 번역 의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영어 원서의 의미와 한국어 번역본의 의미의 차이를 번역이 이루어진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원서 내용과 육당의 번역문을 살펴보자.

1. (ㄱ) ST

What William Dargan, one of Ireland's truest patriots, said at the closing of the first Dublin Industrial Exhibition, may well be quoted now. "To tell the truth," he said, "I never heard the word independence mentioned that my own country and my own fellow townsmen did not occur to my mind. I have heard a great deal of independence that we were to get from this, that, and the other place, and of other great expectations we were to have from persons from other countries coming amongst us..."

(Smiles 19)²⁰

20) 본고에서 원서로 사용한 판본은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옥스포드 월드 클래식(Oxford

(ㄴ) TT

茲에愛蘭의眞愛國者의一人되는윌리엄자갠이第一回셔블린勸業博覽會閉場時에陳한演說을引用하겠노라그가가로대『과연이지余가自立이라는語를聽할적마다한번도我國(곳愛蘭)과我民을想起치아니하는일이업노라感言하되吾人은甲處로서自主를得하리라하고感言하되乙處丙處로서自主를得하리라하니... (최남선 10-11)

(1ㄱ)의 “independence”가 (1ㄴ)에서는 “자주” 또는 “자립”이라고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후에 출판된 번역서에서는 주로 ‘독립’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1ㄱ)에서는 “자주”, “자립”으로 표현된 데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통치라는 맥락에서 ‘독립’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문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육당은 “自立이라는語를聽할적마다한번도我國(곳愛蘭)과我民을想起치아니하는일이업노라”라는 구절을 쓰면서 굳이 “我國”이라는 표현이 조선을 지칭하지 않고 아일랜드 즉, “愛蘭”을 지칭함을 소괄호 안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육당이 언어표현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원서의 내용이 번역본에서는 생략된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다음은 번역서에서 생략된 원서의 한 부분이다.

2.

It may be of comparatively little consequence how a man is governed from without, whilst everything depends upon how he governs himself. The greatest slave is not he who is ruled by a despot, great though that evil be, but he who is the thrall of his own moral ignorance, selfishness, and vice. Nations who are thus enslaved at heart cannot be freed by any mere changes of masters or institutions; and so long as the fatal delusion prevails that liberty solely depends upon and consists in government, so long will such changes, no matter at what cost they may be effected, have as little practical and lasting result as the shifting of the figures in a phantasmagoria. The solid foundations of liberty must rest upon individual character; which is also the only sure guarantee for social security and

World's Classic)으로 출간된 『셀프헬프』(Self-Help)(2002)임.

national progress, John Stuart Mill truly observes that 'even despotism does not produce its worst effects so long as individuality exists under it; and whatever crushes individuality is despotism, by whatever name it be called.' (Smiles 18-19)

육당의 『자조론』에는 (2)가 통제로 누락되었다. (2)에서는 군주제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는 나라”, “군주나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누락에 대한 육당의 의도성을 상정해 볼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조론』은 일본어 번역본을 토대로 중역되었기에 위에서 지적한 누락이 육당 자신의 결정인지, 아니면 참조한 일본어 번역본에서 이미 누락된 내용을 그대로 중역한 결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음을 밝힌다.²¹⁾

3.3.2 제2기

이 시기에 출판된 번역본들은 주로 세로 조판으로 되어 있고, 한자를 혼용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번역본들에서는 여전히 구식 어투가 많이 발견되지만, 비교적 원서의 구성, 단어 및 구문 의미에 충실하게 따르려는 번역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독자의 읽기를 돕기 위해 단어나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예, “텔프트 瓷器”에 대해 “네덜란드의 텔프트라는 곳에서 만든 오지 그릇”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본문 내용 안에 역주로 제시됨)은 있으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설명은 없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자 서문’이나 ‘해설’ 등이 미흡하다.

3.3.3 제3기

제3기에 출판된 『자조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대상독자에 따라 번역

21) 만일 이러한 누락이 육당 자신의 결정이라면 육당의 이러한 “신중함”은, 한일합방 이전의 잡지들이 대부분 합방을 기점으로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육당이 신문관을 통해 1908년부터 『소년』, 『붉은저고리』, 『아이들 보이』, 『새별』, 『청춘』 등의 잡지들을 연이어 발간할 수 있었던 것과 연관 지어 볼 수도 있다. 양문규(195)는 최남선의 출판물의 성격이 식민지 통치 체제에 순응적이었고, 이러한 측면 때문에 출판을 통한 최남선의 계몽주의 운동이 “정치성이 결여된 불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의 형태가 다양하다. 원서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기의 번역본들은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원서에 대한 충실한 번역본에서 원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재구성이 두드러진 번역본이 많으며, 설정된 독자층도 다양하다.²²⁾ 자기계발을 지향하는 직장인, 장래를 고민하는 청소년 등 비교적 구체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책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성의 전환, 축약, 첨가, 부연설명 등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변용이 번역본들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이 이루어진 완역본들(김유신 역, 장만기 역, 공병호 역)에서도 원서인 『셀프헬프』에는 없는 '소제목'이 본문 곳곳에 있어 독자의 읽기를 돕는다. 원서에는 소제목이 '목차'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제시되고 본문 중에는 없으나, 이들 번역본에서는 소제목이 목차 이외에도 본문 곳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종류도 원서보다 다양하다.

『셀프헬프』가 청소년용으로 새롭게 제작된 경우에는 번역서의 쪽수가 대폭 줄고 복잡한 내용은 상당부분 생략된다. 일례로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에서는 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만을 중심으로 한 재구성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에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할 만한 재미있는 삽화의 삽입, 눈에 띄는 디자인의 사용 등이 관찰된다. 또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에서는 역자와 일러스트레이터가 명시되어 있으나,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서는 역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의 경우, '책머리에'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있지만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는 역자 서문도 후기도 없다. 두 번역본은 모두 책표지에 원서의 지은이가 '새뮤얼 스마일즈'임은 밝히고 있지만, 원서의 제목에 대한 정보는 책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책의 내용을 읽어 보더라도 원서의 구성, 체제를 따르고 있지 않아 원서와의 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3기에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은 본 연구에서 제시

22) 이 시기의 번역본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독자를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책의 전반적인 구성, 언어 표현의 사용 등을 기준으로 볼 때(짧고 읽기 쉬운 내용의 글로 구성, 재미있는 삽화 삽입 등) 청소년용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3.5 논의

본고에서는 1859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새뮤얼 스마일즈의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이 이루어진 지난 88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을 검토하고 번역이 이루어진 맥락을 출판번역 관련 주체들, 번역 목적, 독자 등을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제1기에 해당되는 번역본은 1918년 출간된 육당 최남선의 『자조론』으로, 이는 봉건적인 가치들의 타파와 식민지 현실의 극복이라는 계몽운동의 맥락 속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한 책이다. 제2기의 번역본들은 국민 교양 함양을 위해 출간된 서양 고전 전집류에 포함된 도서들이다. 이 시기에는 영어 원서인 스마일즈의 『셀프헬프』를 저본으로 하여 한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번역본들에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작가 및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해설이나 분석을 찾아볼 수 없다. 제3기에 해당되는 번역본들은 실용서 또는 처세서로 출판되었으며 번역 방법도 다양하다. 원서에 대한 충실한 번역에서부터 원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재구성이 두드러진 번역에 이르기까지 대상독자 또는 번역의 목적에 따른 여러 번역의 형태 및 유형이 관찰된다. 그러나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한 번역본에서도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장황한 논의, 복잡한 문화적 개념 등이 명료하고 쉽게 설명되거나 생략 및 단순화되고 있다.

『셀프헬프』의 출판번역에서 텍스트가 재맥락화 되는 양상에 대한 고찰은, 원서가 문화와 언어와 제도의 경계를 넘어 번역어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번역서로 출판되어 제시될 때 원서가 아닌 “새로운 그 무엇”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원서가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의 생활을 조직화하고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라면, 1918년부터 2006년까지 출판된 한국어 번역서들은 근대화 달성을 위한 도구로, 선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하는 교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양 고전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사는 데 필요한 처세서 및 자기계발서로 재맥락화된 도서들이다. 물론 『셀프헬프』가 88년동안 한국어로 꾸준히 번역 및 출판된 데는 시대와 문화의 경계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내용과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셀프헬프』가 한국어로 지

속적으로 번역된 데는 번역서가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을 성공적으로 재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출판 번역이 이루어진 특정 시기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기대와 욕구를 번역서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셀프헬프』가 각 시기별로 특정한 방식으로 재맥락화 되었기 때문에 번역어 문화권에서 생명력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셀프헬프』에 나타난 19세기 영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한국어 번역서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표현되는지의 문제가 출판번역 관련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아닐 수도 있음이 원서의 재맥락화라는 관점에서 출판번역을 고찰할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번역은 “번역되는(translated) 것이 번역하는(translating) 문화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행위”(Venuti 4)라는 베누티의 지적처럼, 출판번역 상황에서 원서가 지니는 문화적 타자성의 보존은 비교적 간단하게 주변적인 문제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출판번역은 번역어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기대에 부응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원서에 대한 출판사들의 접근방식은 무엇보다도 상업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출판번역은 독자의 취향 및 요구, 출판시장의 경제적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관련 주체들은 원작의 텍스트적 의미, 문체, 수사적 구조, 문학적 장치, 작품의 아우라(aura) 등의 충실한 전달보다는 번역서 독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가독성을 출판번역의 중심적인 가치로 간주하게 된다.

4. 결론

『셀프헬프』의 재맥락화에 대한 연구는, 출판번역에 대한 논의가 원서를 기준으로 한 고찰이나 번역텍스트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술(記述)을 넘어, 번역 수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탐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오늘날 출판된 번역서에 대한 비평이 주로 가독성과 충실성의 문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번역 현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맥락’, 즉 원서가 어떤 출판번역 관련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재맥락화’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와 맥락 사이에 결

정론적 관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에 역동적 상호작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셀프헬프』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논의는, 영어로 된 원서가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넘어 번역 주체들에 의해 한국어로 여러 차례 번역·출판되는 가운데, 한국의 역사적·사회문화적·제도적 맥락과 결합되어 번역어 문화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책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출판번역에서도 원서의 종류(철학·문학 서적인가 실용적 서적이거나), 독자의 유형(전문적 번역인가 대중적 번역인가), 번역 관련 주체들의 성격 및 관계(특정분야 전문가 번역자인가 일반분야 번역자인가, 주체들 간에 어떤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 등에 따라 텍스트가 재맥락화되는 양상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번역이 본질적으로 원작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자가 원작을 쓴 맥락만을 모든 판단의 “표준”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번역자의 텍스트 읽기와 옮기기의 기준을 원작 쓰기의 맥락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번역 수행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바람직한 번역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표준”만을 잣대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출판번역을 텍스트의 재맥락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번역 관련 주체들에 의한 성실한 출판번역, 번역윤리의 문제 등에 대한 더욱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번역 주체에 의한 정확한 원서 읽기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 글쓰기이며, 원서가 가지는 ‘다름’에 대한 인정일 것이다. 그러나 번역텍스트가 ‘산물’만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리고 번역은 이미 원서 저자에 의해 맥락화된 텍스트가 번역 주체들에 의해 재맥락화된다는 관점이 있을 때, 다양한 번역어의 모색과 다양한 번역 방법에 대한 탐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번역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심도있는 논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일. 2003. 『신문관 최남선 · 강담사 야간정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병호 옮김. 2006. 『자조론』. 서울: 비즈니스북스 (Samuel Smiles. 1859/2002. *Self-Hel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김선남. 2001. 「국내번역 출판물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4: 99-123.
- 김병철. 1998.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상, 하』. 서울: 을서문화사
- 김유신 옮김. 2006. 『자조론』. 서울: 21세기북스 (Samuel Smiles. 1859/1881. *Self-Help: With Illustrations of Character and Conduct*. Chicago: Belford, Clarke & Co.).
- 김윤식. 1973. 「소년지의 허구성」. 『근대한국문학연구』, 서울: 일지사.
- 김재현. 2004.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 『시대와 철학』 15(2): 305-331.
- 류시현. 2005. 「1910년대 최남선의 『자조론』 번역」.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65-170.
- 류시현. 1999. 「1910~20년대 일본유학 출신 지식인의 국제 정세 및 일본인식」. 『한국사학보』 7: 281-309.
- 부길만. 2002. 「한국 경제 · 경영서 출판의 현황과 전망: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4: 247-265.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오경호. 1992. 「한국전집출판의 통시적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34: 139-185.
- 양문규. 1990. 「최남선 계몽주의의 역사적 한계」. 『역사비평』 12: 194-204.
-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39-57.
- 전현주. 2006. 「번역텍스트의 용인성: 번역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79-106.
- 최남선 옮김. 1918. 『자조론』. 서울: 신문관 (中村正直. 1896. 『西國立志編』. 東

京: 銀花堂藏版.).

- 허연. 2005. 『단행본도서의 베스트셀러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Mona. 2006. "Contextualization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Mediated Events." *Journal of Pragmatics* 38(3): 321-37.
- Bauman, Richard and Charles Briggs. 1990. "Poetics and Performance as Crit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59-88.
- Clausen, Christopher. 1993. "How to Join the Middle Classes with the Help of Dr. Smiles and Mrs. Beeton." *American Scholar* 62: 403-418.
- Duranti, Alessandro and Charles Goodwin. 1992. *Rethinking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P.
- Hobsbawm, Eric. 1962. *The Age of Revolution*. New York: Mentor.
- Holz-Mänttari, Justa. 1984. *Translatorisches Handeln. Theorie und Methode*.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 House, Juliane. 2006. "Text and Context in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8(3): 338-358.
- Jarvis, Adrian. 1997. *Samuel Smiles and the Construction of Victorian Values*. Phoenix Mill: Sutton.
- Morris, R. J. 1981. "Samuel Smiles and the Genesis of *Self-Help*: The Retreat to a Petit Bourgeois. Utopia." *Historical Journal* 24: 1.
- Nida Eugene A. and Charles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Ochs, Elinor. 1979. "Introduction: What Child Language Can Contribute to Pragmatics." In Elinor Ochs and Bambi Shieflin (Eds.), *Developmental Pragmatics*, 1-17. New York: Academic Press.
- Lefèvere, André. 1992.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evinson, Stephen.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 Slembrouck, Stef. 1999. "Translation, Direct Quotation and Decon-

- textualizatio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7(1): 81-108.
- Smiles, Samuel. 1859/2002. *Self-Help*. Oxford: Oxford UP.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Van Dijk, Teun. 2001. "Text and Context Revisited."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Seoul, Korea, June 9-10, 2001*.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ittgenstein, Ludwig. 1958/1967.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lackwell.

[Abstract]

Translating to be Published:An Analysis of the Recontextualization of *Self-Help*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practice of "translating for publishing" by drawing on the concept of "recontextualization" (Slembrouk 1999, House 2006). By tracing and analyzing how *Self-Help*, a book originally written by Samuel Smiles in 1859, is transformed into 17 Korean translations over an 88-year period, this paper problematizes the common perception of published translations which have hitherto been mostly based on their relationship to source texts. The focus of investigation is on how the agents/actors recontextualize the source text so that translations enable, advocate and ratify existing discourses and values in the target culture.

The Korean translations of *Self-Help* a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time of their publication with each group displaying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ranslation-related participants, translation purpose, and targeted audience. The first group (from 1918 to 1950s) contains only one translation: Choi Nam-Sun's *Cacolon*,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from a Japanese translation and published as a part of Choi's modernization project aimed at enlightening the masses -- Chosun youths in particular. Translating was a tool for Choi, an enlightened literati himself, as he strove to accomplish the construction of a "civilized" Chosun and the building of an independent nation-state free from the coercive domin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The second group (from 1960s to early 1990s) includes Korean translations

that were published as parts of complete collections. Produced by academics, mostly specializing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n translations of *Self-Help* aimed at providing culture and refinement to the general Korean readership. This was in line with the general publishing pattern during this period: collections of translated works of important thinkers and authors were produced under the belief that the reception of the ideas and thoughts contained in these collections would provide Koreans, experiencing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dynamic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with the cultivation and education needed to become a certified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Korean translations that belong to the third category (from late 1990s to the present) uniformly profess to be practical, "how-to" books. The translations diversify in terms of format, translation strategy, and targeted readership; nevertheless, some prominent patterns emerge in the profile of translators and publishers. Translating agents are mostly management specialists or academic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publishers tend to be companies that specialize in publishing practical, self-help books or management books. Translations tailored for youths are also found during this period.

The recontextualization of *Self-Help* shows how the choice of a source text is dependent on domestic cultural values. The different recontextualizations of the same source text reveal not only the different conditions under which translating and publishing decisions are made but also the making of a source text into a target text in target culture terms. The study suggests that discussions on translation for publishing need to move beyond the text-based notions and to incorporate the view that translating for publishing are actions and processes that crucially involve agents, values and goals.

▶ Key Words: publishing, recontextualization, context, translating agents, transformation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적 번역, 번역과 미디어, 출판번역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